

대학사회의 메신저, 『대학교육』



이 돈 희
한국교육학회 회장

먼저 『대학교육』지가 한국대학교육협회의 기관지로서 창간 후 통권 100호에 이르게 된 것을 축하해 마지않는다. 『대학교육』지는 대학사회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는 꼭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평가된다. 첫째 『대학교육』지는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학연구의 참신한 자료와 교육현장의 심층적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둘째 대학발전의 정책적 방향과 문화적 조건을 논의해 왔고, 셋째 대학 발전의 방향과 당면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쟁점들을 부각시켜 토론의 장을 제공해 왔으며, 넷째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여론을 확산시키는 언론으로서도 그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역할은 현재 우리의 대학들이 지식기반사회로 지향하는 신세기적 사회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바쳐야 하는 시점에서 더욱 절실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은 하급 교육기관과는 달리 시대적 요구에 항상 민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서도 일반 연구기관과는 달리 그 자체의 전통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독특한 특

징을 지닌 기관이다. 대학의 본질과 전통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대학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전개되는 변화나 활동에 관한 정보는 활발히 교류되어야 하고, 발전을 위한 정책과 여건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지는 바로 대학사회의 이러한 생리적 특징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학교육』지는 오히려 어떤 점에서 ‘개성적 모호성’을 지녀 온 것이 사실이다. 순수한 학술지라고 하기도 어렵고, 대중적 교양지라는 분류에 속하지도 않으며, 단체나 기관의 홍보물에 머물 수도 없었으며,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대내적 기관지의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특징은 현실적으로 대학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 서비스의 수단과 여론 형성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복합적 목표의 설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복합적 목표는 『대학교육』지 그 자체의 개성을 잃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물론, 복합적 목표 그것이 『대학교육』지의 개성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목표의 복합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관리하는 것이 그 기능적 특징을 돋보이게 하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첫째, 대학연구와 교육현장의 자료와 정보는 개별적 순수 학술지의 수준으로 질적인 심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지의 일차적 독자층이 주로 대학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이론적 체계나 심도가 고도의 전문성을 띠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독자층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에 관한 연구나 실천의 정보는 고급화시킬수록 독자층에 서비스의 충족을 기하는 바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좋은 연구물들이 게재되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매호마다 한 두 개의 연구물이나 정보는 양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집중적으로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심층적 연구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격을 갖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제도 일반이나 특정의 범주에 속하는 대학군의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논의도 홍보적 개관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배경과 전략, 그리고 정당화의 논리로 이론적 포괄성과 엄밀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연구중심대학' 이니 '대학특성화' 나 '무시험입학제' 나 '학부제' 나 '구조조정' 이니 하는 최근의 대학 정책적 표현들이 자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오해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책적 모호성에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의 행정문서나 홍보물에서 밝혀지는 것으로 충분히 그 의미를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는 이론적 타당성은 체계적인 역사적, 이념적, 사회적, 전략적 체계를 갖추어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 발전의 방향과 당면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쟁점들을 좀더 신랄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학발전의 과제를 두고 전개되는 논쟁은 반드시 종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사회는 그 논쟁이 종결되기를 기다려 관련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토론은 그 자체로서 문제의 성격을 체계적

으로 검토하는 성과를 가져오며 합의와 반대는 그만큼의 합리적 사고를 공유하는 바탕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대학교육』지는 대학사회의 구성원만이 아니라, 사회일반의 의사와 제안을 표현하는 발언의 통로로서, 그리고 대화의 광장으로서 지니는 역할의 의미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큰 지면이든 작은 지면이든 언로서 활용되면 대학의 본질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박한 것이든 세련된 것이든, 합리적인 것이든 불합리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낡은 것이든, 여러 가지의 사고와 의식이 실제로 우리의 대학사회에 엄연히 기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대학교육』지가 지닌 목표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피상적 균형이나 모호한 개성의 문제는 의식적으로 주기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지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대학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애호물"이다. 『대학교육』지는 그 기능적 특징상 충분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학사회의 애정을 듬뿍 받으면서 계속 자라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한**

이론편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웨인주립대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철학박사)를 받았다.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서울대 사범대학장,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열린교육학회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교육학회 회장, 새교육공동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교육과학의 논리』, 『현대교육과정론』(공저), 『도덕교육』, 『교육철학개론』, 『교육정의론』, 『존 듀이교육론』, 『교육적 경험의 이해』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